

社說

추석 어려운 이웃에게 손길을

사회복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면 따뜻한 이웃이 그리워진다.

최근에는 추석과 같은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쓸쓸한 추석을 맞고 있어 불우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요즘 경기가 일부 호전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100만~500만원에 달하는 값비싼 선물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고 선물을 구입하려는 인파가 매점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지만 불우 이웃에 대한 온정의 발길은 딱 끊겨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외로운 이웃에게 베푸는 온정은 물질적인 지원만은 결코 아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고맙긴 하지만 빈손이라도 방문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손 한번 꼭 잡아주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 18일 포천시는 추석절을 맞아 공직자와 새마을지도자, 관내 초중고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쌀 약 1만1000kg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한가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몇년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시설운영자들의 애가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관심도 크게 줄어들어 예년보다 시설을 방문하

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은 부족하지만 보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비인가 시설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은 외롭고 힘겹기만 하다. 예년같으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불우이웃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게 감소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지역에는 장애인 시설을 비롯해 아동보호 및 노인 보호시설, 정신질환 시설에 신고된 인원만 해도 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미신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혼자 생활을 꾸려가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합쳐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불우 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한 기업이나 일반인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많은 요소를 그 척도로 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빈곤층이 없어야 한다.

우리민족은 예부터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전통이 있다.

올 추석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봉사자들에게는 마음의 만족과 합치고 외로운 이들에게 큰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문용 공천대가 금품수수 무협의

기자회견, “상대후보와 고향후보가 음해”

지난 5·31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이 최종 무협의 처리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문용씨가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돈을 썼다 혹은 상대후보 운동원을 돈으로 채용했다는 등의 온갖 무고와 난무했다”면서 “모든 일이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검찰도 이문용의 무죄를 인정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자신에 대한 법적 인 소송이 3가지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장에게 돈을 주고 공천권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7개월동안 강도높은 수사와 이문용 본인은 물론 가족, 주변인, 은행계좌 추적 그리고 가택수색을 했지만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작은거인산악회와 재경포천시민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혐의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이 자신의 무죄를 인정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면서 “허위사실 고발로 인해 한나라당 포천시당 후보로 선정이 되기도 자리를 내워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방선거 당시 음해했던 대상이 “상대후보측과 고향후보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며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법정으로 가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난 5·31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이 최종 무협의 처리됐다.

장애인과 友情·和合의 축제

제2회 포천시장애인 한마당 큰잔치 개최

포천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정과 화합의 축제인 제2회 포천시장애인 한마당 큰잔치가 포천종합체육관과 운동장에서 9월14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작년도에 개최한 곰두리 체육대회보다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단순 체육경기대회에서 벗어나 장애인 문화행사를 병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장애인들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인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애

인들이 자립·재활의지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장애인선수 및 임원 등 약 780여명이 각 읍면동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여 줄다리기 등 6개 종목에 걸쳐 자웅을 겨루게 되며 체육경기 종료 후 장애인 장기자랑을 펼쳐 한껏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그밖에 장애인 그림 및 공예물품, 의료재활장비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되고 포천시에서는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장만하여 장애인들이 즐겁고 유익한



포천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정과 화합의 축제인 제2회 포천시장애인 한마당 큰잔치가 포천종합체육관과 운동장에서 9월14일 개최됐다.

시간을 보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새롭게 되길 바라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포천시가 앞장 서겠다”고 피력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住民협의회 출범에 첫 발걸음

민관협력 구축 위한 지역 서비스 대상 연계모임

포천시는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내 6대 서비스대상(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별로 8대 서비스(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생활체육, 관광)분야의 민간과 공공의 서비스제공기관 관계자간 연계모임이 큰 호응을 보이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연계모임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관계자들은 포천시 민관협력네트워크에 대한 개념과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민간 서비스 자원의 네트워크인 주민협의회 창립을 위한 창립준비위원을 선정했다.

연계모임을 통해 선정된 준비위원은 민간의 서비스제공기관 및 개인의 서비스컨텐츠를 재조사하여 6대 서비스 대상별 분과로 재분류하고 민간서비스자원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협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포천시는 자활사업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 위해 포천지역자활센터 개관 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저소득주민의 自活터전 마련

포천지역자활센터 개관5주년 기념식

포천시는 자활사업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 위해 포천지역자활센터 개관 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9월14일 포천여성회관 청성홀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박운국 포천시장과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이경호 성공회서울교구교무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자활참여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표창 수여식이 있었으며 연세백병원과 포천자활센터 간 간병지원사업 협약식 교환이 있었다.

또한 축하 수화공연, 축하떡 절단식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봉사를 아낌없이 실천하고 있는 자활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포천지역자활센터가 소의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로 포천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지역자활센터는 집수리, 유류간병 사업 등 자활공동체사업과 영농, 프라스타재활용 사업의 시장진입형사업, 복지간병, 청소 등의 사회적일자리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의 복원기금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77명이 참여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박운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봉사를 아낌없이 실천하고 있는 자활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포천지역자활센터가 소의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로 포천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지역자활센터는 집수리, 유류간병 사업 등 자활공동체사업과 영농, 프라스타재활용 사업의 시장진입형사업, 복지간병, 청소 등의 사회적일자리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의 복원기금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77명이 참여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자활사업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 위해 포천지역자활센터 개관 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분과-양경희(경북대학교수), 이희자(무봉리토종순대국제인사업본부대표)

▶노인분과-김인호(포천나눔노인복지센터장), 강태수(식품가공업포천시지회장) ▶아동청소년분과-이계춘(함께여는새날지역아동센터교사), 이경숙(대한어머니회회장) ▶청년중장년분과-이영환(포천지역자활센터장), 이희용(한국예총포천지부장) ▶여성분과-이문환(포천가족상담센터장) ▶영유아분과-한정숙(포천시보육시설연합회회장)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내 6대 서비스대상별로 8대 서비스분야의 민간과 공공의 서비스제공기관 관계자간 연계모임이 개최됐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9월 10일 ~ 9월 1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7.9.10 포천신문 제388호 발행

2007.9.20 포천신문 제389호 발행

2007.9.30 포천신문 제340호 발행예정

